



2004년 문화예술위원회 미술회관의 초대전에 전시한 작품들

## 십자가 만들기(2)

◎ 윤성진

### 중견작가 초대전에 출품하다

십자가를 만들게 된 경위를 적은 지난 8월호의 내용처럼 이후 계속 십자가를 만들다 보니 개인전을 해도 될 만큼 작품이 쌓였다. 이 십자가들을 모아 서울에서 개인전을 하여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문화예술위원회 미술회관에서 연락이 왔다. 그곳의 프로그램에 매년 2명의 중견작가를 선정하여 초대전을 기획하는데, 기획위원회에서 2004년 초대작가 2명 중, 1명으로 나를 선정하였다는 것이었다 (1명은 조각가 홍명섭). 내가 파리로 간지 10년 가까이 되었는데, 통 작품을 볼 수 없으니 그간 어떻게 작품이 변했나 보자고 했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내가

십자가를 만들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다. 아마 십자가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초대하지 않았을 것이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뭇 듯이 기뻐했다. 왜냐하면 개인화랑이 아닌, 공공미술관에 초대되어 십자가 전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공적인 가치를 위해 운영되는 공공미술관은 말 그대로 공공적인 기준으로 기획되고 전시되기 때문이다. 나는 십자가만 전시할 것인데 괜찮겠냐고 하는 우문은 하지 않았다. 잘 알았으며 준비하겠다고 하였다. 수 개월이 지나 전시작품의 자료들을 보내달라는 연락이 오자 속으로는 걱정이 좀 되었지만 십자가 사진들을 태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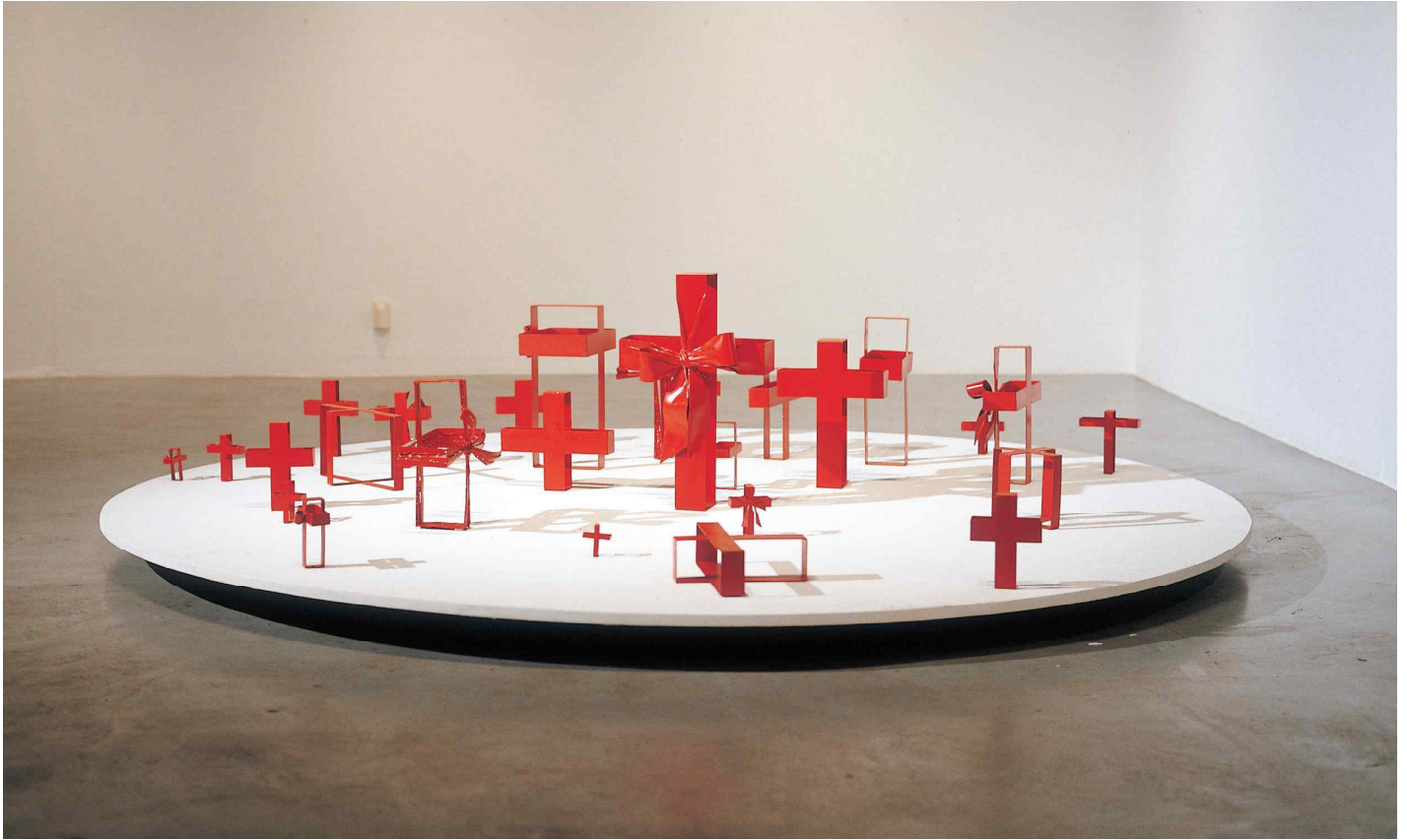
내 마음의 교회, 250x 180x 400cm

사람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제작되어 한편에는 십자가가, 다른 한쪽 편에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형상을 뚫어내어 두 개를 겹쳐 볼 수도 있다.

히 보내었다. 예상대로 난리가 났다. 웬일로 작품들이 십자가 뿐이냐고 다른 것은 없냐고 다그쳐 물어왔다. 나는 없다고, 그렇지만 전시 해 놓고 보면 괜찮을 것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다. 전시계획을 다시 검토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연락하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기획위원 중에 그리스도교 신자도 있는 것 같아서, 취소하지는 않겠지 하고 생각하며 기다렸는데, 다행히 별 말 없이 진행되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좀 특이한 전시가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았다. 전시 준비는 파라다이스문화재단에서 지원도 받고 하며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파리에서 작품들을 운송하여 커다란 두 전시장안 가득히 십자가들을 설치하고 보니 하나님께 커다란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은 감사함과 감동이 있어 흡족한 마음이었다. 십자가를 미술관에서 큰 규모로 전시하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되었다.

#### 교회 안밖의 대조적인 반응들

그런데 세상은 나의 생각과는 많이 달라서 박수만 쳐주는 것이 아니었다. 믿음을 갖은 사람과 믿지 않는 세상으로 나누어져 있는 두 개의 관점은 작품이라는 결과물을 볼 수 있거나 아니면 전혀 보지 못하거나 하는 식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어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십자가 작품들은 별로 보고 싶지 않은 대상이고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것이었다. 전시 오프닝 전날 일간지 기자들과 전시홍보를 위한 간담회를 주최측의 주선으로 가졌고, 작품에 대한 많은 이야기도 하였지만 다음 날, 몇 줄의 단신이 몇 개 나왔을 뿐 제대로 된 기사로 다루어 지지 않았다. 미술 전문 잡지들도 마찬가지로 다루지 않았다. 반면에 나는 그렇게 많은 기독교 신문, 잡지, 방송매체가 많은 있다는 것을 이전에 알지 못하였었다. 매일 인터뷰를 했고, 교계 신문이나 방송에서 크게 다루었다. 교회와 교회 밖과



작품명 : 말씀의 선물, 신약 27권을 크고 작은 십자가들로 만들었다.

는 너무도 다른 상황인 것이었다. 많은 믿지 않는 작가 친구들이 와서는 작품이 많이 변했네 하거나 아니면, 너무 심한 거 아냐 하는 말들을 남기고 갔다. 한 믿지 않는 평론가가 한 말, '일반 적인 작품을 잘하는 사람이 십자가를 만드니 십자가도 좋네' 라는 말이 위안이 되는 상황이었다.

#### 전시회를 통해 느낀점

신앙적으로나 조형적으로나 잘 만들어진 십자가로 일반 미술계에도 영향을 주고, 현대미술의 관점에서도 그 영역을 넓혀나가는 한편, 세상의 문화 속에 기독교 문화를 심는다는 나의 꿈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물론 이 일이 단 한번의 전시로 가능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었지만 그 동안 내가 미술계에서 해온 활동들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의 토대는 쌓아갈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이렇게 철저하게 외면당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초전박살이 난 것이다. 하지만 득도 있었다. 우군이 생각보다 큰 힘

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고 앞으로의 전술에 대하여도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었다. 적당히 중간지대에서 전체를 아우르려고 했던 생각을 버리고 우리 진영을 더욱 공고히 하여 세상에 대응하여야 승산이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 생각하고 있었던대로 세상에서 익숙한 형식 속에 교회를 내재시키어 크게 드러나지 않는 방법이 유효하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어떤 드라마를 보면 그 드라마를 쓴 작가가 그리스도인이어서 기독교의 진리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 역량을 길러 세상에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방법이다. 다른 분야와 달리 현대미술의 영역에서는 자신의 신앙 안에서 세상에서의 일을 충실히 해나가는 방법이 어렵다. 그 이유는 허무주의를 기초로 하여 20세기 유럽을 중심으로 발전되어온 현대미술이 극단적인 비기독교적 양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0세기 후반 이후로는 그 양상



마태복음 27장 11절~28장 10절의 각 절을 흰 천 위에 흰색 실로 수놓고, 핏자국들을 붉은 실로 수놓은 작품

이 극한으로 치달아 안티 기독교, 동성애, 자학, 자기 상실 등등의 비기독교적인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온전한 정신의 작품들은 시대정신을 거스르고 있다고 치부되는 것이 현실이다.

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독교 미술은 교회를 통하여 세상의 미술에 대응할 힘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서구의 교회는 힘이 없고, 미국과 우리나라의 기독교 교회들은 미술을 멀리해왔기 때문에 미술이 문화 전체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에 관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일례로 유럽 큰 미술관에 가서 보면 중세에는 모든 미술문화가 기독교 미술로 도배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일전에 한 친지는 루브르 박물관에 다녀온 후, '회화는 모두 기독교 미술 뿐이네' 라고 한 말이 생각난다. 우리가 획득하는 정보의 80%는 시각체험에 의한다고 한다. 하루 종일 눈뜨고 보는 수많은 이미지들은 우리에게 직간접으로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매체들이 쏟아내는 이미지들은 선한 것일까? 특히 우리의 눈을 끌어잡은 시간에 효과를 높이려는 광고들은 쉬운 방법으로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런 것들은 선한 것들일까?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 선한 양심적 정서를 줌먹는 것들이다. 교회는 좀더 예술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음악과 좋은 이미지들을 생산해내는 데에 앞장서야 한다.

#### 파리 화랑가에 갤러리를 만들다

이러한 생각들로 나는 교회와 세상의 접촉점으로 화랑을 만들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같이 조각가로 활동하는 치(박상숙)와 함께 2005년, 세계 현대미술의 중심인 파리의 가장 중요한 화랑가인 마레 지역에 갤러리(Galerie Lumen)를 만들었다. 우리는 일반적인 현대 미술 작품들을 전시하는 중에 기독교 미술 작품전을 끼워 넣기 시작하여 10년 뒤에는 모든



작품명 : 촛대 촛대십자가 모양으로 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다.



작품명 : 목시 석고 속에 철 십자기를 묻고, 녹물이 배어나오게 했다.

전시를 기독교 전시로 한다는 알찬 계획이었는데, 매년 1-2회의 기독교미술을 기획하여 전시는 하였지만 7년이 지나도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는 못하고 있다. 그간 '한국의 기독교미술', '예수님의 얼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흩어진 나그네', '성령의 불' 등의 테마로 기획된 전시회에 30여명의 한국 기독교 미술의 대표적 작가들이 전시되었다. 2006년, 한 기획전에는 평소 사진을 많이 찍으신 옥한흠 목사님도 참여작가로 모셨었는데, 피카소 미술관 근처의 화랑에서 훌륭한 작가들과 함께 데뷔전(?)을 갖

게 되어 기쁘다고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난다. 이러한 전시들은 마치 큰소리로 외치며 길거리나 지하철에서 노방전도를 하는 것과 비슷한 형국으로 꾸준히는 하였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영향력을 갖지는 못하였다. 앞으로 기독교 미술 작가들은 세상에 대하여 열려있는 자세로 더 뛰어난 작품들을 제작하고, 하나님의 때도 기다려야 한다.



윤성진 1952년 대전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자랐다. 서울대학교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경남대학교와 전북대학교 교수를 역임하였다. 1995년 이후, 파리와 서울을 오가며 생활하고 있으며, 2005년에 파리에 갤러리 뤼멘을 설립하였다. 그간 국내외에서 7번의 개인전과 100여회 이상의 초대전에 참가하였고 1986년, 동아미술대상을 수상하였다. 주요 작품들은 국립현대미술관, 인촌기념관, 전쟁기념관, 한국은행,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 L.A. Cornerstone 교회, CTS 사옥, 오산고등학교 등에 소장되어 있다.